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859-2400 ~ 2410 FAX: 063-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5월 23일 수요일 (음 4월 9일)

제205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 금산사 봉축 법요식



22일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열린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태공 율주 대종사와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 전북권 보훈요양원 전주 건립 '가시화'

시, 후보 부지 현장답사  
보훈처, 내달 중 최종 결정  
2020년까지 건립 예정  
요양실·작업치료실 갖춰

전북지역 4만여 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국립보훈요양원 건립이 건립 부지 선정에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전주시와 국가보훈처는 지난 21일 박순중 전주시장 권한대행과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김우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이강안 전북도 광복회 지부장을 비롯한 보훈처·전북도·전주시·보훈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권 보훈요양원의 전주 건립을 위한 후보 부지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회에서 참석자들은 전주시와 전북도가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후보지로 추천한 전주시 일원 부지 3개소를 직접 방문하고, 후

보 부지 주변 여건과 건립 타당성 등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건립후보지 현장답사 이후 부지결정을 위한 정책 심의회를 개최, 오는 6월 중 전북권 국립보훈요양원 부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권 보훈요양원은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북권기금 356억원을 투입해 1만㎡(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장기보호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실과 작업치료실 등이 갖춰지게 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보훈요양원을 통해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고령 국가유공자에게 전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현재 수원과 남양주,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등 6곳에서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 전북권 보훈요양원 외에도 원주시에 강원권 보훈요양원이 건립되고 있다. /기동채주반

## 전북도, 정부 추경 1063억원 확보

당초 예산안 704억... 국회단계에서 359억원 증액  
군산 위기 대응·전북 산업구조 체질개선 동력 얻어

전북도가 2018년도 정부 첫 추가경정 예산으로 국회단계 증액을 통해 당초 예산액을 훨씬 뛰어넘는 총 1,063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뿐만 아니라 조 선소와 GM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대책 신규사업 등이 반영됨에 따라 향후 1조1,549억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분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경예산 가운데 전북으로 구분돼 편성된 예산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근로자 및 지역협력업체 지원' 217억5천만원을 비롯해 ▲산업위기

지정' 402억8천만원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42억5천만원 등 모두 1,06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특히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당초 정부예산안 704억원보다 훨씬 많이 증액되었다"면서 "이는 도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의 결과로 군산경제 회복을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이 갖는 전북경제 지원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예산에는 군산 등 8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대책사업으로 반영된 풀(pool)비 성격의 고용 및 일자리 지원예산 전체 규모가 1조 4천5백 여억원 정도로 앞으로 추가가 더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산업위기지역 경제대책 연구용역비가 신규로 반영됨에 따라 산업위기지역의 자동차와 조선관련 산업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낳고 있다. 도는 이번 추경에 신규 반영된 17건의 경우 다 년도에 걸친 사업으로 향후 3~4년에 걸쳐 6,947억원이 연속적으로 투자될 계획으로 있으며, 신규 계속사업의 경우는 첫째 예산 반영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반영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5일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 지정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대책·보완산업 대책 중 사업과 예산의 특성상 이번 추경예산에 담기 어려운 사업들은 향후 세부계획 수립, 예비타

당성 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되면 향후 4,602억원 정도가 더 확보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모두 1조1,549억원 이상이 전북 예산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와 관련 "이번 추경예산은 우선 위기의 전북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단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전북 산업구조 개편과 체질개선을 통해서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을 만드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본사 인사

▲송호철 임:기자 명:편집국 사취부

(5월 23일자)

###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내일부터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01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하여야 하며,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출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외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사항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2018 치즈 사랑 반하다! 임실 사랑 풀리다!

## 임실N치즈축제

10.6.(토) ~ 9.(화)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치즈마을

치즈를 테마로 한 국내 유일 체험형 관광지

##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전화 063-643-2300 www.cheesepark.kr

임실군